

# 유튜브 유해 콘텐츠 제재 강화 시급

시청자 확보에만 혈안 자극적 영상 남용 문제  
명확한 규제·가이드라인 등 감시 시스템 절실

#1 게임 유튜브가 인터넷 생방송 중 강아지를 학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 A씨는 생방송 중 강아지에게 욕설을 하고, 목덜미를 잡아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방송을 보던 누군가가 경찰에게 A씨를 신고했으며 현장을 방문한 경찰의 음성도 방송에 담겼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게 “내가 내 강아지를 때리는 것이다”며 뻔뻔함을 보여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해당 유튜브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6만여 개가 넘는 등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2 주니어 유튜브 부모들이 자극적인 영상을 제작하면서 아동학대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유튜브 채널인 ‘뚜아뚜지TV’에는 ‘몸무게 15kg 쌍둥이가 10kg의 대왕문어를 먹었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쌍둥이 자매가 대왕문어를 힘겹게 먹는 장면을 본 독자들에게 웃음을 안겼다. 2017년 아동 보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1,7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이보람양(6)의 부모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눈점은 보람양의 부모가 보람양을 장난감 자동차에 태운 뒤 실제 차들이 달리는 도로 위에서 촬영한 영상이다. 이를 두고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은 부모에게 아동 보호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으라는 보호처분을 내었다.

유튜브 시장이 해마다 급성장하고 있지만 유해 콘텐츠를 제재할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영상제작자들에게 따르면 광고 수익 창출을 위하기 위해서 많은 시청자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일부 유튜브들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 시켜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플랫폼의 경우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인터넷 생방송을 할 수 있어 불법·유해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음란물 노출부터 폭력·협박 등 자극적인 소재를 중계하는 영상이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플랫폼의 주 이용객이 청소년들이라는 점이다.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전국 만 13세~18세 중·고등학생 1,058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청소년 인터넷 개인방송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114.9분 동안 인터넷 개인방송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별로는 ▲유튜브(36.4%) ▲

아프리카TV(16.8%) ▲트위치TV(16.6%) ▲V앱(11.7%) ▲네이버TV(11.6%) 순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대한 법적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의 경우 혐오 표현이 담긴 영상이나 가짜 뉴스가 올라오면 사업자가 반드시 해당 콘텐츠를 블라인드 처리하고 7일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수사기관의 벌금을 내야 한다. 최근 프랑스 역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하원의원을 통과했다.

국내에서는 인터넷방송 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인터넷방송도 방송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송법 개정안,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이다.

시민들도 유튜브 등 1인 방송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진영씨(25·여)도 “가끔 방송을 보면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방송인을 본다”면서 “플랫폼의 발전을 위해 선정적인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유튜브의 선정적 콘텐츠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광주 시민단체 관계자는 “유튜브도 기존 매체 이상으로 영향을 미쳐 잡음이나 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기본 방송사만큼 자체적인 규제나 사회적 감시 구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에 맞는 감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 “SRF 연료사용 신고 미룬 나주시 위법”

광주지법, 신고수리 처분 기각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용승인 처분 등의 신고를 접수 받고도 1년 6개월 동안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은 나주시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관련기사 11면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기리)는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사용승인 처분 등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난방공사의 연료사용 승인 및 사업 개시 신고 수리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나주시가 난방공사의 신고를 받고도 이상수리나 거부·보완 요구 등 1년 6개월 동안 어떠한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주민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민관 협력 거버넌스 협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고 연기를 요청한 사안은 짧은 시간 내 양 측 간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난방공사는 지난해 1월 나주시를 상대로 연료사용 승인과 사업 개시 신고를 수리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나주시는 SRF 가동에 따른 안전문제가 입증되지 않아 8차례에 걸쳐 SRF 파쇄 사용계획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난방공사는 이에 대해 나주시가 주민 민원 때문에 적절한 이유 없이 연료사용 승인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기자

## 광주지역 고교생 ‘일본 불매운동’ 확산

각급학교 동참 잇따라

광주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본격화 한다.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고등학교 학생회 모임인 ‘고등학교 학생의회’의 2019년 2차 정기회에서 ‘각 학교가 불매운동에 동참하자’는 사례발표가 나왔다.

당초 정기회는 급식 영양기준과 식기류 위생관리 개선, 세월호 추모행사 사업 운영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불매운동에 대한 제안이 나왔고, 현장에 모인 학생의원들은 적극 호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덕고 전 학생회장이자 현 고등학교학생의회 부의장인 윤시우 학생은 소속 학교가 지난달 17일 진행한 사례를 소개하며 광주 전체 학교의 동참을 호소했다.

고등학교학생의회 의장인 윤남고 이 민정 학생은 “현재 다수 학교 학생회에

서 개학 후 불매 운동을 진행하거나 회의를 열어 논의하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리되고 정돈된 국민 여러분들이 변화는 나의 작은 의지와 행동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임을 믿는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 특성화·마이스터고 교장단도 학생실험실습 기자재, 비품, 재료에 일본제품을 사용하거나 구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광주 고등학교학생의회는 오는 10일 오전 광주 삶디자인센터 5층 팔팔라홀에서 세월호 추모행사인 ‘나비가 된 당신들을 기억하며’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세월호 유가족들도 참여해 학생들에게 언론 매체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 일부 가짜뉴스로 인해 왜곡된 사실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조기철 기자

## “신군부 5·18 강경진압 ‘아킬레스건’”

기록관, 김대중 학술대회 개최

5·18 민주화운동 전후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권력 장악을 위해 군사 정변을 일으키고 정권 찬탈 희생양으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김 전 대통령 10주기를 앞두고 다시 주목받고 있다.

5·18기록관은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열흘 앞둔 8일 기록관에서 ‘기록물로 본 5·18과 김대중’이란 주제의 학술대회를 열었다.

최정기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무력 진압과 정권 찬탈을 정당화하기 위해 5·18 항쟁을 불순한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주장해야만 했다. 항

쟁 발발 동시에 국가폭력과 항쟁을 왜곡·편향하는 조작을 시작했다.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과 선제적 조치로 광주를 강경 진압한 것은 5공화국에게 ‘아킬레스건’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영재 한양대 학술연구교수는 5·18 왜곡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토론문을 통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구조적 후유증’을 주목했다.

이 교수는 “신군부는 5·18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엮어 일명 ‘빨갱이론’과 ‘북한 개입설’로 왜곡,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정당화했다. 이는 영남 중심의 패권적 지역주의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됐고, 그 후유증이 현재 정치구도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종찬 기자



무등산 수박 출하 가을의 문턱에 들어 선다는 입추(立秋)인 8일 오전 광주 무등산수박 정보화마을에서 농민이 탐스럽게 익은 무등산 수박을 수확하고 있다. 일반 수박보다 2~3배 큰 무등산 수박은 진초록색 껍질에 줄무늬가 없으며 단맛과 과육의 감칠맛이 일품이다. /김태규 기자

### “네가 내 엄마야?”

**도리개**

한 50대가 경찰서행.

○·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56)는 전날 오후 3시 25분께 서구 쌍촌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자신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가족을 돌보

○·술을 적게 마시라고 혼계한 이웃 주민을 폭행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B씨가 자식같은 마음으로 A씨에게 조언을 했던 것 같은데 되레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김종찬 기자

## 덕남동, 임야 **급매**

## 장단기 최고 투자 **블**건

-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

문의. 010-6834-7400